

### 고흥군, 제16회 자원봉사자 대회 성료



고흥문화회관서 600여명 참석

#### 사랑·나눔 실천 봉사자 격려

고흥군은 6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송기근 고흥군수, 송우섭 군의회 의장, 허강숙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16회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묵묵히 사랑과 나눔을 그리고 배

려를 실천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대회는 식전행사와 기념식으로 나눠 치러졌으며, 식전행사는 청소년 댄스, 팝페라 가수 등 축하 공연과 봉사단체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여 분위기를 고조 시켰고 기념식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체험수기 시상 및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선호 추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자원봉사로서 더 따뜻하고 살맛나는 고흥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격려사에서 “평생 자원봉사자로 봉사·헌신하며 40년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마리안노와 마가렛 두 분 간호사처럼 봉사는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된다”고 말하고 “자원봉사는 고흥의 자랑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정이 넘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김장김치 나누기, 이동 목욕봉사, 소록도 이미용봉사, 환경 정비, 각종 축제 자원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되고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송년행사

주간재활 프로그램 대상자와 가족 대상, 1년간의 활동 공유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순복)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11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실에서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이용자 및 가족, 관계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동행’ 송년행사를 열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지지하고 가족들과 공감하며 용기를 갖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회원들이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미술, 문예작품 등을 전시하고 1년간의 활동 동영상 함께 시청하며 서로의 재활의지와 결속을 다졌다.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동의 개선을 유도해 재입원을 방지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18명에게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생활체육, 약물교육, 사회적응훈련과 요리실습 등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정신장애인

김순복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정신적 장애를 훌훌 털어버리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현대모비스 “장애는 틀림이 아님 다름”...어린이 동화 발간

현대모비스가 연말을 맞아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어린이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2500여곳에 자체제작한 동화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8~13살 어린이들이 동화를 읽으며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모습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발간한 동화의 제목은 ‘북희탕의 비밀’이다. 주인공 호테의 아빠가 어느날 갑자기 물 밖에서 다리를 쓸 수 없는 인어로 모습이 변해 호테의 생일 기념 여행을 하기 힘들어지지만 서로를 위해 두려움을 떨

치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는 줄거리다.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식 개선 도서 시리즈 ‘함께하는 이야기’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배포한 동화책이 1만2000권을 넘어섰다. 특히 이번 동화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을 인어 지느러미가 생긴 것으로 비유, 어린이들이 장애를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했다. 또 갑자기 인어 지느러미를 갖게 된 아빠 역시 자신을 배려하는 호테를 보고 용기를 내는



과정도 묘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뉴스1

#### 나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행위 합동 점검

구역 불법행위 합동 점검

나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신고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 함평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실에서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형제·자매 2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진로직업체협의 기회 마련 및 가정과의 연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오순도순 함께하는 가족 체험’이라는 주제로 ‘크린베리 쿠키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박영숙 교육장은 “장애학생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가족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만들겠다.”고 전하였다.

함평=김평춘 기자

**아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아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